3/27/2022 (주일예배 설교 아웃라인)

- 본문: 요한복음/John 13:31-35 (사순절 말씀묵상)
- 제목: **"서로 사랑하라" "Love One Another"**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가장 원하시는 것은 무엇일까요? 왜, 어떻게 사랑해야 할까요?
Q: Why should we, and how can we love one another?

I. _________은 예수님의 ______ __________ 입니다. (34-35절)

Love is the _________ C_____________________ of Jesus

- 레/Lev. 19:18
- 요/John 3:16
- 요일/1 John 4:7-11

II. __________ 처럼 ________하라. (34-35절)

Love like ____________________

- 요/Jn 13:1
- 요/Jn 13:14
- 요/Jn 13:21

III. _______은 예수_________의 증거입니다. (34-35절)

Love is the ___________________ of a disciple.

- 고전/1 Cor. 13:1-8, 13

> **복음 (The Gospel)**
>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요 3:16).
> *For God so loved the world, that he gave his only Son, that whoever believes in him should not perish but have eternal life. (John 3:16)

셀모임/가정예배 (Weekly)

(Sharing Questions for Family Devotion & Cell Meeting)

1. **감사:** 한 주간 살면서 하나님께 감사한 것 / 힘들었던 것 나눠봅시다.
2. **말씀:** 주일 설교 말씀을 요약을 해 봅시다 (맡은이)
3. **적용:** 말씀을 통해, 하나님 뜻에 순종하며 적용해야 할 것은 무엇인가?
4. **기도:** a) 순종할 힘을 달라고, 나의 모든 염려를 주께 맡기며 기도합시다.
   b) 이번 부활주일(4/17)에 초대해야 할 사람들을 위해 기도합시다.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교회 / The Spirit-led Church (2022)

목회서신 (3/27/2022)

지난 목요일 오후 부터 오늘 아침 까지 **몽골인 동부지역 선교대회** (East Coast Christian Conference) 가 우리교회에서 있었습니다. 어른과 아이들 약 320명 정도가 참석했다고 합니다. 고린도전서 10:31 - Do it for the Glory of God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라) 라는 주제였습니다. 황필남 선교사님과 김말례 선교사님 외 몽골인 영적 지도자들이 팀 워크를 통해 귀한 전도와 선교 부흥회 였습니다. 시카고에서도, 뉴욕에서 또한 근처에서 모이셔서 정말 뜨겁게 찬양하고, 뜨겁게 기도하고, 뜨겁게 교제 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참 행복해 보였습니다.

본당 옆에 있는 아기방에서 부터, 아랫층 유아실, 유치부실에 어린 아이들이 신나게 놀며 왁짝지걸 했습니다. 몽골교사들도 아이들 보느라 수고많이 했습니다. 이들 중엔 익숙한 얼굴들도 많이 보였습니다. 작년 6월에 몽골교회와 우리교회 중고등부 대학부 수련회 때 만난 얼굴들이였습니다. 토요일 오후에는 당회실, 성가대실, 새가족실, 본당을 세미나 실로 활용했습니다. 덕분에 몽골음식도 먹어보는 은혜도 있었습니다. 우리교회 목회자님들께서도 사무실 복사 도우미, 벤 운전, 쓰레기 청소 등으로 섬겨주셔서 참 고마웠습니다. 김경고 장로님, 김정예 권사님도 참 수고 하셨습니다. 본당 지붕위에서는 박종욱 집사님 팀이 열심히 A/C 공사를 하고 계셨습니다. 토요일 오후 부터는 교육관에서 죠셉 황 전도사 (황필남 선교사님 둘째 아들)가 youth 부흥회도 인도했습니다.

오늘 교회 구석구석에 혹시 지난 3일의 은혜의 흔적이 있을 겁니다. 물건들이 제자리에 없을 수도 있고, 장남감이 망가졌을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교회가 더 깨끗해졌을 수도 있습니다 (몽골교회는 청소를 아주 잘 한다고 소문을 들었습니다). 교회 건물에 있는 물건들은 자꾸 쓰고 닳아서 없어져야 합니다. 장남감과 놀아 줄 아이가 없는 것 보다 더 행복한 것이죠. 저는 이번 선교부흥성회를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언젠가 우리 교회가 이렇게 되겠구나. 우리교회 본당에서, 교육관에서, 아기방, 유치부실, 유년부 실에서 한국아이, 중국아이, 남미아이, 몽골아이들, 흑인 백인 아이들이 함께 뛰어 놀으며 함께 예배드리는 그 날... 그 날을 저는 지난 3일 동안 보고 느끼게 되었습니다.

주님, 우리 교회가 많은 민족들이 함께 모여 예배 하며, 뛰놀며 함께 밥먹는 날이 속히 오길 바랍니다. 그날이 이번 부활주일이 되고, 또한 매주가 되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정말 The Church for All Nations가 되게 해 주세요. 주님의 시간에, 주님의 방법으로... 아멘!

주 안에서, 전진석 드림.